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7/8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신심령(물목개달음의노래)	해국스님	모과나무	6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영관스님	효림
2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 최인호	여백	7	행복 뇌 접속	릭한스/김미옥	담앤북스
3	술만제대로쉬면무병장수문제였다	수신오도	사유수	8	지원스님100세건강법	지원스님	고려원북스
4	행복은덜처럼우리결에있네	월호스님	위즈콤앤비	9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5	불교기독교를논하다	이제열	모과나무	10	불자로산다는것	도일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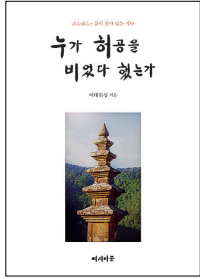
가족·생명·세상 이야기 모두 '불법 속 생활'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모범불자, 즉 참 불자는 어떤이를 지칭하는 것일까? 여러 기준이 등장하겠지만 불심을 가슴과 머릿속에 넣고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삶을 산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구도에 세이(바라밀 일기)와 선시집인(누가 허공을 비었다 했는가)를 펴낸 이 대원성 '연꽃모임' 회장(사지)이 바로 이 기준에 딱 맞는 참불자다. 그 이유는 이 대원성 회장은 칠순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도 단 한번도 불심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1967년 조계종 중흥을 지낸 고암 스님에게 대원성이란 법명을 받은 이 회장은 이듬해 울산인 일타 스님께 보살계를 받았다. 이후 1977년 신학당체인 '연꽃모임'을 창립해 10년간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해인사 지족암 공양회장 23년, 군법당 후원회장 16년, 보현봉사회 발족 회장 20년 등 평생 큰 원력을 세워 수행과 자비나눔을 이룩했다.



바라밀 일기
이 대원성 지음
여시어문 펴냄
1만 7천원



누가 허공을 비었다 했는가
이 대원성 지음
여시어문 펴냄
7천원



모범불자의 '佛行' 에세이와 '시심선심' 시집
"내가 나를 버릴 때 더 큰 내가 되었어라"

약방을 운영할 때 전국 큰스님들이 날마다 와서 법담을 나누고 또 보약 지을 때면 먼저 스님들께 보시하는 부친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 새벽마다 아버지와 함께 절에 가서 예불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차츰 불교의 뜻을 이해하고 신심도 증장시켰다. 저자는 1966년 대한불교청년회 대각사지부에 가입해 불교 활동을 시작했다. 해인사서 수련대회를 마치고 前 중흥고암 스님으로부터 오계를 받게 되면서부터 이적목이란 이름대신 대원성이란 법명으로 다시 태어나, 오로지 불교와 함께 한 삶을 시작했다.

1969년 같은 불교청년회 회원인 노재섭 거사와 결혼 하고 단칸방서부터 작은 부처님을 모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 하며 경을 읽고 쓰며 네 아이들을 키웠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구 하나 잘못이 있으면 대대신 108배로 단죄 벌을 주고 했다. 새로 지은 밥이면 하루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고, 아이들이 과자를 먹을 때도 부처님께 절 한 후에 막게 하는 등 저자의 집은 언제나 부처님이 큰 어른으로 섬기며 살아왔다.

1977년 1월, 저자는 백일기도 회향을 맞아 이웃과 친구들 128명을 모아 연꽃모임을 만들었다. 그 당시는 젊은 아내네들이 절에 잘 가지 않을 때여서 매달 한번씩 절에 가서 큰스님들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참 불자가 되는 좋은 도반이 되자며 불심의 동기를 열었다. 그로부터 저자의 집에서는 회원들이 모여 매일 점심 식사를 해 먹으면서 부처님 이야기, 절 이야기, 스님들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었다. 큰스님들이 오실 때면 자연스레 마를 법회를 하게 되었다. 좁은 집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집을 넘어 절이며 법당이 있었다. 때로는 지나는 스님들이 골목을 서성이면 이웃 사람들은 곧장 우리 집으로 안내하는 황당한 일도 자주 일어났다. 저자의 집은 수 많은 스님들이 다녀간 거룩한 도량이었다. 지금은 그 집이 아파트 단지로 변해 추억만 남았지만 말이다.

1980년 교육감을 지낸 이윤근 거사가 부산불교신도회 회장일 때 저자는 젊은 나이로 부회장직을 맡아 함께 16년을 일했다. 이때 저자는 각종 세미나며 수련회 동참 등으로 미진한 신심을 점검하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불자가 되기로 서원했다 그 책에서 회고한다.

1986년에는 부산불교합창단을 연꽃모임서 처음 결성했는데, 지금은 사찰마다 단체복을 입은 합창단이 구성된 것을 보면 한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뜻있는 회원들을 모아 작은 장학회도 만들어 스님과 대학생들에게 보시했는데 지금 그 학생들이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뿌듯하다는 저자는

1994년부터 보현봉사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가정에 작은 관심을 나누고 있다. 같은 해, 군법당후원회도 조직해 지난 2010년까지 16년간 매월 후원금을 보시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온통 불교라는 밑바탕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었으며, 함께 해주 많은 인연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 특히, 훌륭한 불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부처님의 품속에서 이루어진 사실도 큰 영광이며 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겸손해 했다.

시집(누가 허공을 비었다 했는가)때내 이번에 함께 펴낸(누가 허공을 비었다 했는가)는 선시 77편을 묶은 것이다. '시심선심(詩心禪心)', '살이 살아있는 시'란 부제를 단 이 책은 저자의 삶과 수행 이야기를 담은 구도시(求道詩) 모음집이다. 저자는 시집에서 수행담 및 삶에 대한 아름답고도 진솔한 이야기들을 잔잔한 시어(詩語)로 펼쳐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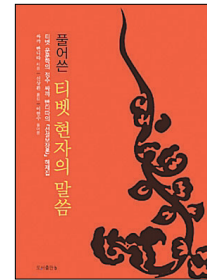
저자는 '허공이 비었다고 누가 말했나'란 제목의 시를 보면 "천지 만물을 다 품어 부모의 품과 같은 넉넉함으로 물 생명들을 다 살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피와 살과 형제자매와도 같은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불자의 삶을 서원하고 있다.

"진실한 삶을 위해"라는 시에서는 "미움은 내려놓고 사랑은 가슴에 가득 채워라. 고마움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서운함은 날려버려라. 기쁨 때는 이웃을 생각하고 은혜는 내 몸의 피처럼 모셔라"라며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삶을 발원하고 있다. 저자가 머리말을 대신한 '나의 서원'이란 시에서 "나는 큰 나무이고 싶다. 누구나 편히 쉬 수 있는 그늘을 주기 위해"라며 밝히고 있듯이, 가족과 이웃, 생명을 위한 큰 나무이자 넓은 들, 넓은 바다, 큰 산, 높은 하늘, 꽃이고자 하는 일승보살의 큰 원력을 시집에서 공감할 수 있다.

前 국어교사가 저자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면 "가장 마음에 드는 시는 '못난이 사과들의 시위'였다. 분별심을 내는 자체가 속물근성이겠지만 타고르의 시에 필적하는 시편들"이라고 극찬했다.

독자들은 "내가 나를 버릴 때 내가 아닌 우리가 되었네.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있어 더 큰 내가 되었네"라는 저자의 노래처럼, 시어를 하나가 주옥같은 법문의 단단한 알갱이로 다가온다.

인간이 갖춰야 할 품성이 곧 불교 요체



풀어쓴 티베트 현자의 말씀
싸까 뻘디따 지음
신성환 옮김
이현주 풀어쓰
도서출판b 펴냄
2만 8천원

"외모부터가 일반인들과 다른 출가수행자들은 그 외모로 인해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따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출가수행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언제나 그 점수를 되찾아갈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런 기준은 도력이 높다고 알려진 사람일수록 더욱 엄격해진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이쯤 따라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정하게 살아가는 출가수행자들의 이름은 도박과 음주와 골프와 사음 같은 추문으로부터 명드는 게 아니라 티끌처럼 작은 허물 하나에도 허망하게 무너져버리고 만다. 계와 율과 입과 몸과 뜻을 청정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또 하나 명심(銘心)할 게송이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티베트 유일의 '뻘디따', 즉 '현자'란 칭호를 받았던 싸까 뻘디따가 지은 티베트 문헌학의 정수인 <선설보장론>을 우리말로 옮기고 해제한 책이다. 티베트어로 '싸까 렉쎬(Sa skya legs bshas)'로 불리는, 예전에는 티베트의 수도 라싸의 포파라 궁에서 관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게송들을 주로 인용하며 담소를 나눴을 정도로 티베트인들의 일상서 통용되는 잠언집이다. 또한 오늘날에도 티베트 망명 정부의 각급 학교에서는 이 책을 티베트 문헌학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선설보장론>을 우리말로 옮기고 해제 티베트인 일상의 삶서 통용되는 잠언집 티베트 망명 정부 학교 문헌학 교재로 사용

이것을 우리말로 옮길 때 역자 신성환은 '타고르 대학'으로 유명한 인도 비스바 바라티 대학의 인도-티베트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며 티베트 문법과 역사 불교 철학 등을 가르치고 있었고, 해제가 이현수는 '진행성 근이완증'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장암 수술을 받기까지 했다.

'티베트인들의 삶에 녹아 있는 잠언들을 오늘날 한국인의 시각으로 풀어보자'는 뜻이 통한 이 둘은 약 2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인도와 한국이라는 공간적인 거리를 넘어 매일 하루 한 게송을 원칙으로 450여개에 달하는 게송의 울바른 의미에 대해서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 책은 티베트 불교를 밀교의 신통방통한 수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이 곧 불교의 요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진 스님은 "티베트 유일의 '뻘디따', 즉 '현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싸까 뻘디따가 지은 티베트 문헌학의 정수인 이 책을 옮긴 신성환 교수는 역경사(譯經士)의 모범이다. 원문의 뜻을 해석하면서 우리말의 섬세함까지 갖추려는 그의 노력을 볼 때마다 무엇이 역경사의 자제인지 반추하게 된다."며 "그 공덕에 2년여 동안 게송 하나의 의미를 헤아리던 선생의 사경 수행의 공덕이 보태져 더더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 신심 깊은 불자들이 들들 선생을 볼 때면 조선의 선비와 같은 울림을 느끼게 된다."고 평했다.

김주일 기자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신간!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기번째 저서 출간!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제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낱낱이 설하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전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 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침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말소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입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충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해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ly.co.kr**